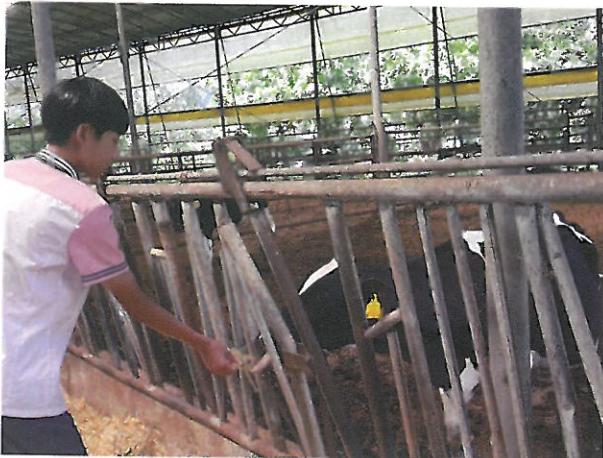


꿈나무 지역(영광군) 문화관광 탐험대 여행후기

| 학년 | 반 | 번 이름: 정승제

소감문(사진첨부 가능)



제일 처음에 불갑사를 갔다. 불갑사에서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고
옆에 지수시 있는 곳에서 10분동안 있었다. 설명을 듣을때 생각
나는 것은 야단법석이었는데 말이다. 불갑사에서 그鬥이 나왔다
고 하셨다. 그 다음 불교도래지를 갔다. 그곳에서 영상을 보았다.
불교가 산해서 보았다. 옆에 유물들도 전시되어 그걸로 보고
나왔다. 그 다음 미드목판이 갔다. 먼저 치즈를 만들었다.
치즈를 물에 담갔다가 빨아내기를 반복하며 치즈를 만들었다.
그리고 길게하고 뭉치면서를 반복하고 길게해서 소금물에 넣는다.
조금 기다리고 치즈를 빼면 스트링 치즈가 되었다. 그걸로 가위로
자르고 스스로 다찍어 먹는다. 엄청 맛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좀 느끼했다. 치즈를 만들고 목장에 가서 엽소, 젖소, 토끼에게 먹이를
주었다. 젖소가 엄청 커졌다. 그 놀이 래어난 젖소도 있었는데
그 것도 커졌다. 그리고 희자를 만들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
져서 좋았었다. 희자를 만들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우리들은
크게 만들었는데.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먹을 때는 엄청
맛있었다. 그리고 조금 양이 적었고. 나는 미드목판이 가장
재미 있었다. 다음에도 가고 싶다.